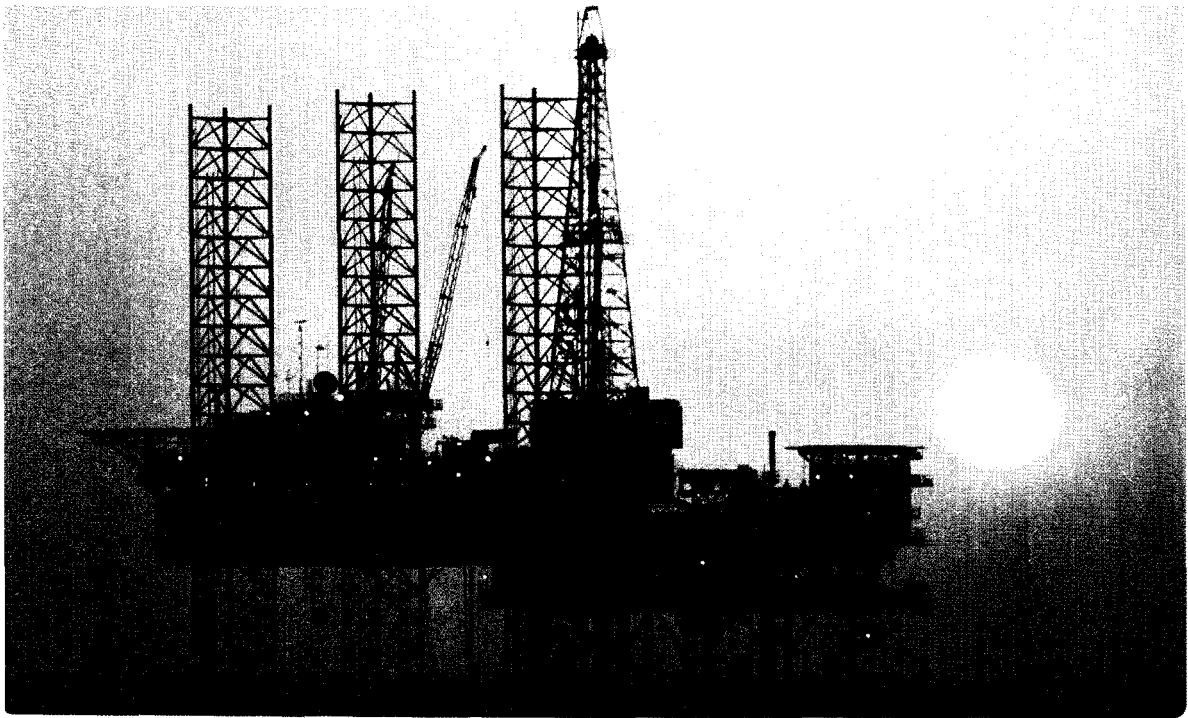


#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석유시추 환경 안전표준 도입

지난해 멕시코 만 기름유출 사고 이후 강화된 자체 표준 준비 중

BP는 멕시코 만 기름유출 사고 이후 지속적인 석유시추활동을 위하여 미 연방규제보다 엄격한 안전과 환경표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편집자>



▲ BP사는 멕시코 만 기름유출 사고 이후 사고보상금으로 40억 달러 이외에도 강화된 자체 표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님위터 호라이즌(Depwater Horizon)호의 폭발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British Petroleum)은 향후 멕시코 만에서 진행되는 석유시추 프로젝트에 보다 엄격한 새로운 임의표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사고보상금으로 40억 달러를 약속한 회사인 멕시코 만에서 석유시추를 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연방 안전과 환경표준보다 강화된 자체 표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연방 규제기관들은 11명의 인부와 500만 배럴의 기름을 분출했던 2010년 4월 재난 발생 후 유정(油井)이 봉합되기 3개월 전에 멕시코 만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석유시추를 정지시켰다. 올해 해양에너지 운영·규제·집행국 (Bureau of Ocean

